

로웰의 시: 현대 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

이 원 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국문초록

본 논문은 로버트 로웰의 시가 현대 세계에 대한 로웰 자신의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광기’(madness)와 ‘이성’(reason)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 세계에는 이성의 광기에 대한 독백만이 남게 되었다는 푸코의 주장처럼, 로웰도 이성 중심의 제도화된 현대 세계가 개인의 의식 세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로웰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행위는 인간적 가치를 지닌 공공의 영역이 소진된 현대 세계에서 와해된 공공의 질서를 기록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기록자 로웰에게는 공공의 가치가 와해된 현대 세계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절망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로웰의 이러한 입장은 방관자적 비평가로서 초월을 시도하는 『배은의 성』(Lord Weary's Castle)과 같은 초기 시로부터, 사회의 억압적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인생 탐구』(Life Studies)를 거쳐서, 다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미합중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For the Union Dead)로 이어지며 변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집에 드러난 로웰의 변화를 현대 세계에 대한 로웰의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주제어 ▮ 초월, 광기, 이성, 역사, 청교도주의, 사회적 규범, 제도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wjlee@knou.ac.kr

미셸 푸코(Michelle Foucault)는 19세기에 이르러 이성과 비이성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현대 세계에는 이성의 광기에 대한 독백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Sarup 69). 푸코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세계가 이성만큼이나 중요한 비이성 혹은 광기를 잃어버림으로써 두 요소가 서로 균형을 맞추며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상실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이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서 기능하는 이성과 사회의 중심에서 벗어난 비이성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도록 도덕적 획일성을 강요당하게 된 데에 있는 것으로 푸코는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푸코의 주장처럼 이성과 비이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면, 이처럼 이성만이 강력한 힘을 행사하게 된 현재의 상황은 왜곡된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 사회 속의 개인은 사회적 규범으로 나타나는 이성에 짓눌려 바람직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 현대인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 이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벗어날 수는 있을 것인가?

로웰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작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

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로웰은 개인의 의식 세계를 끊임없이 침범하는 이성 중심의 제도화된 현대 사회가 지닌 파괴적인 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로웰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화하면 랜덜 자렐(Randall Jarrell)이 최초로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라는 용어를 붙인(Mazzaro viii) 시집인 『배은의 성』(*Lord Weary's Castle*)¹⁾과 같은 초기 시의 방관자적 비평가의 모습에서, 사회의 억압적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인생 탐구』(*Life Studies*)를 거쳐서, 다시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미합중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For the Union Dead*)로 이어지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집에 드러난 로웰의 변화를 현대 세계에 대한 로웰의 대응 방식의 변화 과정으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그런데 이러한 변화 과정이 현대 세계에 대한 로웰의 근본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의 시에서 현대 세계는 일관되게 이미 개인의 삶이 위협받는 지옥 같은 곳일 뿐이다. 초기 시집 『배은의 성』에 담긴 시들에

1) 이 시집의 제목은 「램킨」(“Lamkin”)이라는 오래된 발라드에서 따온 것으로, 프랭크 비다트(Frank Bidart)의 설명에 따르면 영주 위어리(Lord Weary)가 자신의 성을 지은 램킨이라는 이름의 석공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기를 거부했고, 이러한 배신에 대한 복수로 램킨이 위어리의 아내와 아이를 모두 죽인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작품의 제목을 「배은의 성」으로 옮겼다.

서도 로웰은 현대 세계가 지옥과도 같은 곳임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지옥이 현대 세계 전반에 걸쳐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단지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의해 초래된 현대 세계의 지옥을 사회 비판을 통한 대응으로 초월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점이 『인생 탐구』 이후의 시와 구별될 뿐이다.

초기 시에서 로웰은 “슬픔과 공포”(sorrow and horror, Michelson 143)의 대상인 현대 사회에 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비판하는 비평가의 입장을 유지한다. 「추방자의 귀환」(“The Exile’s Return”)에서 로웰은 전쟁을 마치고 귀향하는 한 병사의 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사회에 돌아와서 ‘시청’(Hôtel de Ville)을 포위하는 병사의 모습으로 현대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데, 사회를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병사의 모습은 『배은의 성』에서 로웰이 견지하는 기본자세이다. 그가 들어가는 현대 세계의 문에는 단테의 지옥문에 쓰여 있던 글귀가 새겨져 있지만, 로웰은 아직 이 지옥을 노력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곳으로 여긴다. 단테의 지옥문에는 “이곳에 들어서서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lasciate ogni speranza, voi ch'entrate)라고 쓰여져 있지만, 로웰에게 있어서 현대 세계는 아직 삶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Voi ch'entrate, and your life is in your hands* 3).²⁾ 물론 단테의 지옥과 마찬가지로 현대 세계의 지옥에 들어서려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함을 로웰도 충분히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지옥은 사회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2) 본 논문에서 로웰의 시 본문에 대한 인용은 1977년에 개정판이 출판된 *Selected Poems*에서 했다.

병사 로웰에게 있어서는 노력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초기 시에서의 로웰에게 있어서 시를 쓰는 일은 현대의 지옥에 대한 교정의 노력이자 초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초기 시에서 로웰은 지옥으로 변한 현대 미국을 낳은 정신적 뿌리를 탐구하고 이를 제거함으로써 현대의 지옥을 교정하려 한다. 드와이트 에딘스(Dwight Eddins)의 언급대로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신의 대행자로 자처하여 인디언들을 살해하고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현대의 지옥을 만들어낸 것이며, 이후의 미국 역시 착취의 논리와 목표를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로웰의 입장이다.

가톨릭교의 인본주의 전통이라고 로웰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괴리되어,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신의 대리자로 여기는 왜곡된 생각을 구실삼아 무자비하게 자연과 인디언들을 착취했다. 이어지는 미국 역사는 그저 그 목표와 착취의 명분을 바꾼 것에 불과했다.

Alienated from what Lowell feels to be the humane tradition of Catholicism, the Pilgrims mercilessly exploited land and Indians under the cover of a twisted conception of themselves as agents of God. Subsequent American history merely changed the targets and the rationale of exploitation. (42)

2차대전 당시 해군 전함에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촌 워렌 윈슬로우(Warren Winslow)의 때 이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넌터킷에 있는 퀘이커 교도 공동묘지」(“The Quaker

Graveyard in Nantucket”)에서 로웰은 현대 세계 전반의 죽음에 관해 고찰한다. 현대 세계는 미국 자본주의를 낳은 퀘이커 교도들의 고래잡이로부터 시작된 자연의 파괴가 이미 절정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퀘이커 교도들과 에이함 선장(Captain Ahab)이 잡으려 했던 고래는 이미 인간에게 죽임을 당해 “내장이 빠져 나와 있고”(the whale’s viscera go 9) 그 결과 생명력을 잃은 자연은 썩은 냄새가 세상에 진동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로웰이 차용한 『모비 딕』(*Moby Dick*)에서의 에이함의 고래 사냥은 펄로프(Marjorie G. Perloff)의 지적처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핵심 상징”(the central symbol of man’s attempt to abuse his dominion over nature 140) “임을 감안하면, 고래는 자연 그 자체 또는 자연의 복원력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고래의 내장이 빠져나온다는 것은 고래의 죽음, 즉 자연이 이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래로 상징된 자연을 인간이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세상이 이미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타락했다는 것이 현대의 상황에 대한 로웰의 인식인 것이다(the roll of its corruption overruns this world 9).

밀튼(John Milton)의 「리시다스」(“Lycidas”)로부터 이어지는 애가(elegy)의 전통을 따른 이 시에서 로웰은 대포에 맞서 싸울 의지와 힘이 없다면 생명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 파괴되어버린 세상의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인간들의 파괴적 행위에 대응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함이 지옥 같은 신계

고해하는 이 바다로
이 시신을 던지는 선원들이여
파랏파랏, 지치지 않고, 순결한
강철 비늘 두른 지진 일으키는 자를 마주할 때,
모래 자루 쌓아 이 대서양 진지를
지킬 힘이 없다면, 찾지 마라,
생명을 되찾아 올 오르페우스의 류트를.

Sailors, who pitch this portent at the sea
Where dreadnaughts shall confess
Its hell-bent deity,
When you are powerless
To sand-bag this Atlantic bulwark, faced
By the earth-shaker, green, unwearied, chaste
In his steel scales: ask for no Orphean lute
To pluck life back. (“The Quaker Graveyard in Nantucket” 6)

대서양 진지를 지킬 힘이 없다면 생명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로웰의 언급은 현대 세계의 파괴적인 힘에 대응하여 맞서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대 세계는 회복이 불가능한 지옥일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현대 세계에 대항하여 싸워서 얻게 될 오르페우스의 피리 역시 결코 완벽한 구원을 불러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르페우스가 결국에는 유리디스를 현세로 데려오지 못한다는 점을 감을 감안하면, 로웰이 현대 세계의 회복을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래 자루를 쌓는 것으로 세상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현 가능성도 그다지 크

지 않다는 점을 로웰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나마 보이지 않는다면 현대의 지옥은 결코 초월할 수 없음을 로웰은 지적하는 것이다.

초기의 로웰이 현대 미국의 지옥을 낳은 청교도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의존한 것은 가톨릭의 이념이었다. 현재의 미국을 낳은 원인이 청교도주의의 무차별적인 물질 추구하고 자연의 착취에 있었다면, 청교도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로웰이 믿었기 때문이다. 로웰은 가톨릭 신전이 있는 월싱햄에서 신과의 영교가 가능하고 신의 세상으로 귀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으며, 이 월싱햄으로 가다 보면 “끈질기게 남아 있던 아픔을 어느 순간 잊게 되리라”(…until you lose / Track of your dragging pain. 9) 믿었다. 로웰의 이러한 초월에의 믿음은 마지막 연에서 로웰이 가톨릭에 귀의함으로써 지니게 된 비전을 통해 드러난다. 인간의 착취로 “기름 바다”(greased wash 10)가 되어버린 현대 세계의 지옥으로부터 자연의 생명력을 착취했던 퀘이커 교도들의 고래잡이가 자행되던 시절의 바다로 연결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신이 인간을 창조했을 당시의 생명력을 유지한 바다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써 로웰은 현대 세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로웰의 이러한 가톨릭에 대한 희망은 「현관과 제단 사이」(“Between the Porch and the Altar”)를 거치면서 포기될 수밖에 없다. 1연 「어머니와 아들」(Mother and Son)과 2연 「아담과 이브」(Adam and Eve)를 거치면서 모든 것을 제도화시키

는 사회적 힘이 현대 세계 전반에 걸쳐 존재함을 인식하게 된 로웰은 무의식의 영역인 꿈을 통해 사회의 이러한 파괴적 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생명력을 상징해야 할 어머니와 이브는 강력한 사회화의 상징으로,³⁾ 현재의 질곡을 낳은 청교도주의 이데올로기는 농부의 동상이라는 형태로 현대인들의 의식을 규제한다.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을 통한 재생력을 상징해야 할 남녀 간의 정사조차 “음란하게 미끈거리는 뱀 한 마리가 새끼 오리의 목을 조르는”(the whorish slither of a snake / That chokes a duckling 17) 부정적인 행위로 규정된다. 이들의 정사에 의해 청교도적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농부의 동상이 녹아 내리지만, 이는 오직 아담의 의식 속에서만 녹아내릴 뿐이다. 「캐쓰린의 꿈」(Katherine's Dream)이라는 부제가 붙은 다음 연에서 볼 수 있듯이 로웰의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I must have slept, But still could hear my father... 17) 때문이다.

이제 무의식의 영역조차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을 깨달은 로웰은 단순히 객관적 실체로서의 사회악이 아닌 인간을 사회화시키는 파괴적인 힘으로서의 사회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캐쓰린의 꿈」에서 로웰은 종교 역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에 불과함을 깨닫는다.

누구든

그곳에 들려면 동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3) 어머니가 “도수 없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은 뒤에서 논의할 「근시의 하룻밤」에서 안경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감안한다면 사회화의 주체로서의 어머니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동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수녀님들은 웃는다.
나는 옆으로 물러서서 깜짝 놀란다;

One

Must have a *friend* to enter there, but none
Is friendless in this crowd, and the nuns smile.
I stand aside and marvel; (18 필자 강조)

가톨릭에서조차 참회를 위해서는 ‘동무’로 상징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화가 필수적이다. 4연 「제단에서」(At the Altar)에서도 로웰의 이러한 인식은 점점 강화된다. “일곱 개의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려서 순찰차 없는 텅 빈 길”(Our car / Races through seven red-lights—then the road / Is unpatrolled and empty 18)에 이르지만, 결국 마주하게 된 것은 고딕 양식의 교회이다. 로웰은 교통법규라는 사회적 규범과 금기를 어기는 일탈행위를 통해서 사회의 제약을 벗어나서 사회의 제도적 통제장치인 경찰의 순찰이 없는 텅 빈 곳으로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곳에도 교회로 상징된 또 다른 형태의 제도화된 사회적 제약의 하나인 종교가 존재할 뿐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주님 역시 구원을 상징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족쇄를 찬 루시퍼”(Lucifer in harness 19)이며, “칼에 손을 대고, 어머니를 대신하여 나를 감시하는”(hand on sword, / He watches me for Mother 19)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결국 로웰이 현대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택했던 가톨릭의 교리 역시 청교도주의와 다를 바 없는 사회적 지배 담론의 다른 모습일 뿐임을 발견

하게 되는 것이다.

3

로웰의 이러한 시도와 좌절은 이성 중심의 현대 사회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이성적 대응이 실패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로웰의 실패는 이성을 교정할 수 있는 대립항으로 비이성이 아닌 형태만 다를 뿐인 또 다른 이성을 설정한 데서 비롯된 예정된 실패라 할 수 있다. 로웰은 드디어 1959년에 출판한 시집 『인생 탐구』(*Life Studies*)에 실린 「알프스를 넘어서」 (“Beyond the Alps”)에서 신의 도시 로마를 통해 현대 세계를 초월하려는 희망을 버리고, 인간의 삶이 지닌 부조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인간의 도시 파리로 향한다.

오 아름다운 로마여! 승무원들이 종을 울리며
발뒤꿈치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삶은 풍경으로 바뀌었다. 몹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신의 도시를 있던 그곳에 두고 나는 떠났다.

O bella Roma! I saw our stewards go
forward on tiptoe banging on their gongs.
Life changed to landscape. Much against my will
I left the City of God where it belongs. (55)

‘초월’의 희망을 잃은 로웰은 사회적 차원을 떠나서 자신의 개인적 삶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지를 탐구한다. 이는 지옥 같

은 현대 세계 속에서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로웰에게 있어서 삶은 더 이상 초월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으로서의 로웰이 깊어지고 나가야 할 집이다. 이제 로웰은 지금까지의 ‘역사’(history)를 통한 초월의 시도를 버리고, 삶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잡사’(genealogy)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본질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현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로웰은 사회에 의해 조건화되지 않은 존재의 모습에 대한 탐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로웰의 시도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시도이며, 동시에 온전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로웰이 이러한 시도에서 발견하는 것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가해자이기도 한 자신의 모습이다. 「결혼에 담긴 슬픔」(“To Speak of Woe That Is in Marriage”)에서 볼 수 있듯이 쾌락을 좇아서 창녀촌을 찾는 자신의 천박한 욕망과 「웨스트 스트리트와 렵키의 추억」(“Memories of West Street and Lepke”)에서 양심적 반전주의자로서 감옥에 갇힌 자신의 고결한 이상이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명을 만들어낼 결혼이라는 긍정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창녀촌의 허망한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의 질곡을 창조한 가해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이 간혀 있는 웨스트 스트리트의 감옥이 결국 로웰 자신의 헛된 욕망이 초래한 결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현대 세계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탈출을 시도했던 로웰이 경

험한 좌절은 가해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로웰은 현대 세계가 사회적 부적응자들을 감금하는 감옥과 정신 병원에도 광기의 영역은 사라져 버렸음을 발견한다. 「뮌헨 수용소에 갇힌 미친 흑인 병사」(“A Mad Negro Soldier Confined at Munich”)에서의 완전히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 흑인 병사의 모습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식욕과 성욕이라는 감각적 욕망만을 지니고 있을 뿐 “습관의 노예”(slaves of habit 58)가 되어 있으며, 수용소 안의 세상 역시 “에어컨 켜진”(air-conditioned) 규격화된 사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사회는 ‘광기’를 지닌 인간을 가두고 사회에 조건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우울하게 잠에서 깨어」(“Waking in the Blue”)에서의 “페어웨이”(fairway 87)에서 벗어나 있는 보우디치 홀(Bowditch Hall) 역시 사회적 규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사회가 마련한 장소이다.

까마귀들이 딱딱하게 굳은 페어웨이에서 주절댄다.
 결핍! 내 심장이 점점 긴장되어 간다.
 마치 작살이 사냥감을 찢러대듯이.
 (이곳은 “정신이 아픈” 사람을 위한 집이다.)

Crows mander on the petrified fairway.
 Absence! My heart grows tense
 as though a harpoon were sparring for the kill.
 (This is the house for the “mentally ill.”) (“Waking in the Blue” 87)

‘페어웨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서구의 대중적인 스포츠인 골프에서는 코스 내에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깎아 놓아서 플레이에 아무런 제약과 문제가 없는 그런 정상적인 구역을 가리킨다. 페어웨이를 살짝 벗어난 부분은 러프, 아예 코스를 이탈한 부분은 해저드(hazard)와 아웃오브바운즈(out-of-bounds)라고 명명된다. 이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벌칙(penalty)을 가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규율과 규정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정상으로부터 벗어난 ‘비정상’(abnormal)의 굴레를 씌우는 현상과 거의 같다. 보우디치 홀은 사회적 규범을 벗어난 이들을 교화하여 다시 생명력을 잃은 “페어웨이”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 사회가 허락하는 정상의 영역인 페어웨이는 까마귀가 의미 없는 소리를 짓어대는 공허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결국 로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비이성의 영역마저 현대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의 장소가 될 수 없다. 이곳 역시 현대 세계가 점령하여 이성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로웰이 사회적 규범을 어김으로써 도달한 곳 역시 현대 세계의 일부일 뿐이었고, 그곳의 모습 또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로웰이 시도했던 탈출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 충동”(an impulse, not an answer, Kalstone 84)에 불과했지만, 로웰에게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로웰은 인간이 이성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완전히 이성적 능력을 잃어버린 「뒤틀린 수용소에 갇힌 미친 흑인 병사」에서의 흑인 병사

나 「웨스트 스트리트와 랩키의 추억」에서의 랩키의 모습에서 이성적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규격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의 개선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된다. 로웰이 생각한 이성의 대립항으로서의 비이성 혹은 광기는 미친 혹은 병사나 전두엽 절제술을 받아서 백치가 된(lobotomized 92) 랩키의 무이성과는 다른 차원의 것임이 분명하다. 로웰이 긍정적으로 여긴 광기는 이성과의 창조적 대립을 통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광기와 비이성이지만, 현대 세계는 이러한 창조적인 대립의 여지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희망이 없다. 이를 인식하게 된 로웰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다.

이러한 절망의 경험을 통해 로웰은 현대 세계에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 지에 대한 진정한 인식에 도달한다. 루드만(Mark Rudman)이 『배운의 성』에 실린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의 “화자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고 육체적으로는 수동적인 채로 머물러 있다”(the narrator remains detached and physically passive 45)고 했을 정도로 여전히 현실 세계에 대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던 것과 달리, 「스컹크의 시간」(“Skunk Hour”)에서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된 현대 세계를 바라본다. 초월에의 희망을 버리고 주변을 둘러본 로웰에게 비춰진 현대 세계는 인간에게 영양분이 될 만한 긍정적인 것은 모두 사라진 쓰레기들만 남은 세상이며, 이러한 현대 사회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 로웰이 느끼는 것은 절망감이다. 과거의 가치체계는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다.

계절이 아프다 —

우리는 여름철 백만장자를 잃었고
그는 통신판매 목록에서도 사라진 것 같았다.
그의 9요트 보트도
가재잡이 어부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붉은 점이 파란 언덕을 뒤덮는다.

The season's ill —
we've lost our summer millionaire,
who seemed to leap from an L. L. Bean
catalogue. His nine-knot yawl
was auctioned off to lobstermen.
A red fox stain covers Blue Hill. (“Skunk Hour” 95)

“은둔자 상속녀”(hermit heiress)의 소작농이 마을을 움직이는 인물이 되어 있으며, 백만장자의 요트는 일개 바닷가재 어부에게 경매되는 판국이다(95). 이러한 질서의 변화를 로웰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겼을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작품 내에서의 전반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는 질서의 전도를 보여주는 예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인간의 사랑마저 생산력을 상실한 기계적인 것이 되어 있다. “동성애자 실내장식가”(fairy decorator)가 결혼을 원하지만(He'd rather marry 95) 이는 생산력을 상실한 부정적인 사랑의 상징이며, 남녀 간의 사랑이 벌어지는 장소는 “무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때맞춰 라디오에서는 “사랑, 오 애정 없는 사랑...”(Love, O careless Love... 96)이라는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대 세계가 이미 황무지이며 지옥임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대의 지옥에서 인간들은 썩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스텝크

들만이 문명의 쓰레기더미에서 문명의 찌꺼기인 “썩은 크림”(sour cream 96)을 먹고도 생명력을 유지하지만, 인간은 스킵크들처럼 쓰레기를 먹고 살아갈 수는 없다. 스킵크의 모습을 통해 로웰은 현대 세계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되지만, 그 지혜는 “쓰레기 냄새 나는 공기를 들이마시는”(breathe the rich air 96) 절망의 지혜일 뿐이다.

4

이제 1964년에 출간된 『미합중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For the Union Dead)에 실린 「근시의 하룻밤」(“Myopia: a Night”)에서는 현대 세계의 부조리함과 황폐함을 깨닫고 이로 부터 탈출하려 한 로웰의 시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의 안경은 사탄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지식의 참조체계이자 가장 강력한 이성의 산물을 상징한다. 로웰은 한순간 지식의 참조체계에 담겨 있는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버림으로써 완전한 사회와의 결별을 시도하지만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물은 뒤엉켜서 실체를 인식할 수 없으며, 지적에 있는 사물마저 흐릿한 영상으로 비쳐질 뿐이다.

잠자리,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것이
흔들거리고, 흐려지고, 이상하다
근시에게는 그저
일 피트만 떨어져도.

Bed, glasses off, and all's
ramshackle, streaky, weird
for the near-sighted, just
a foot away. ("Myopia: a Night" 114)

로웰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에 의해 부여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언어는 가장 강력한 사회화의 도구인 동시에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침투하게 담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사회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어마저 버려야만 하고, 이 경우 비록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지라도 사회의 실체를 정확히 묘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잃어버리게 된다.⁴⁾ 따라서 『인생 탐구』에서 로웰이 시도한 현대 세계로부터의 탈출은 결국 이성적 힘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부여된 참조체계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된 로웰에게 남은 것은 사회에 조건화되어 있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이제 로웰은 『미합중국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통해 다시 역사 속의 존재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해 진정한 성찰을 시도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로웰은 황무지 혹은 지옥으로서의 현대 세계를 초래한 과거의 죄악이 단순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과거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와 긴밀히 연관되어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는 실체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로웰의 인식은 보스턴 광장에서 서 있던 왜곡된 이데

4) 라깡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사회적 존재가 되며, 인간을 주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라고 주장한다(Sarup 7).

올로기의 상징인 동상 대신에 자본주의의 썩은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금고(Mosler safe)가 놓여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사회의 실체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해자가 더 가깝다,
여기에 지난 전쟁의 동상은 없다
보일스톤 가에는 상업사진 속에서
히로시마가 끓고 있다.

그 아래로 “바위처럼 단단한” 모슬러 금고가
그 폭발에도 살아남았다. 우주가 더 가깝다.
텔레비전 향해 몸을 구부리면
검둥이 어린 학생의 시든 얼굴이 풍선처럼 솟아오른다.

The ditch is nearer,
There are no statues for the last war here;
on Boylston Street, a commercial photograph
shows Hiroshima boiling

over a Mosler Safe, the “Rock of Ages”
that survived the blast. Space is nearer.
When I crouch to my television set,
the drained faces of Negro school children rise like balloon.

(“For the Union Dead” 136)

텔레비전을 향해 몸을 굽히는 로웰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제
수족관(the Aquarium)도 사라졌을 뿐 아니라 사회가 완전히 획

일화되어버렸음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로웰은 이 세상의 어디에도 사회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조건화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로웰 자신도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시를 쓰는 과정 역시 로웰에게 있어서는 삶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이다(Rudman 107).

5

이상과 같이 살펴본 로웰의 현대 세계에 대한 대응 방식의 변화는 로웰의 현대 세계에 대한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초기시에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던 로웰은 『인생 탐구』 이후에 이르면서 초월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음을 인식하게 된다. 황폐한 현대 사회의 일부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게 된 로웰에게 있어서 사회가 지닌 문제의 해결은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성’만이 힘을 지닌 현대 세계에서 ‘광기’가 설 자리마저 이성이 차지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광기의 영역을 사회의 일부로 규격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피어슨(Gabriel Pearson)의 언급대로 로웰의 경우에는 문학 또는 시를 쓰는 행위가 인간적 가치를 지닌 공공의 영역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와해된 공공의 질서를 기록하는 노력이었으며(23), 기록자 로웰에게는 공공의 가치가 와해된

현대 세계의 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절망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 논문 투고 일: 2022.08.08

□ 심사 완료 일: 2022.08.12

□ 게재 확정 일: 2022.08.12

- Eddins, Dwight. "Poet and State in the Verse of Robert Lowell." *Modern Critical Views* 59.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Ferguson, Frances. "Appointments with Time: Robert Lowell's Poetry through the *Notebooks*." *Modern Critical Views* 59.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Kalstone, David. "The Uses of History." *Modern Critical Views* 59.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Mazzaro, Jerome. "Preface." *Postmodern American Poetry*. Urbana: U of Illinois P, 1980.
- Michelson, Robert. "Randall Jarrell and Robert Lowell: The Making of *Lord Weary's Castle*." *Modern Critical Views* 59.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Pearson, Gabriel. "The Middle Years." *Modern Critical Views* 59.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Rudman, Mark. *Robert Lowell: An Introduction to the Poetry*. New York: Columbia UP, 1983.
- Sarup, Madan.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8.



Abstract

Lowell's Strategic Changes in Coping with the Modern World

Wonjoo Lee

Dept. of English
KNOU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changes in the strategies that Lowell employs in his poems to cope with the hellish modern world. As Foucault once stated in his *Madness and Civilization* (1971) tha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dialogue between reason and unreason was broken and now there are only the monologue of reason on madness, Lowell also tried to grasp his true identity by coping with the institutionalized modern world which invades the consciousness of individuals. For Lowell, “literature is a precondition for a human world, denied against the circularities and randomness of natural process. ... Where the space is threatened or extinguished, literature takes over as the repository of its values.” Lowell tried to regis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public order and systematic dismantlement and irrevocability of the civic order. Lowell's strategies change from the earlier poems of *Lord Weary's Castle* in which Lowell tries to transcend reality by becoming a

passive critic, through Life Studies in which he shows individual efforts to overcome the society's oppression, to the later poems of For the Union Dead where he re-recongizes the importance of history. In this paper, the changes in modern society that Lowell portrays in his poems are regarded to be the changes in the strategies in his coping with the modern society and these strategies are closely examined and analyzed.

| **Key Words** | transcendence, madness, reason, history, puritanism, social norm, institution